

옥황상제가 되신 하나님

천지간 모든 세상만물에는 정히 이름(명칭)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우리 사람이 붙인 것들이라는데 있습니다. 우리 저마다의 이름은 물론이고 하늘도 태양도 개도 호랑이도 모두가 사람이 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호랑이를 ‘호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호랑이에게 ‘호랑이’라는 이름을 붙여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우리 사람처럼 그들 스스로도 이름을 붙여두고 있다면 말입니다. 곧 호랑이 자신은 자신의 이름을 ‘으르렁’이라고 붙여 두고 있는데, 생뚱맞게도 사람이 자신을 ‘호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 호랑이의 입장에서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호랑이는 우리 사람을 ‘멍멍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람이 지들 멋대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다면 누가 붙인 이름이 맞는 것일까요? 필자의 생각에는 둘 다 맞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모든 이름은 나

자신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선대(先代)]들이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붙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신 스스로 아호(雅號)나 별호(別號)를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름은 본래 남이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붙여둔 것이라면 외람되지만 스스로 붙인 이름은 어찌 보면 호랑이가 우리 사람에게 붙인 ‘멍멍이’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덧붙여 이름은 부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재발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공통점은 상호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매한가지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름(명칭)은 나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이 부르기 위해서 붙여 둔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이름은 필자의 조부(祖父)께서 지어주었습니다. 이 책명도 필자가 붙여두었습니다. 필자가 다니고 있는 교회이름도 초창기 선교사께서 붙여주신 명칭입니다. 그렇지만 ‘호랑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앞서 살았던 누군가가 붙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바로보아 되짚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누가 붙인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조건을 다름없이 만족하여야 합니다. 곧 하나님보다 앞서 사셨던 어떤 분이 부르기 위해서 붙여 둔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곧이곧대로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앞서 사셨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붙인 이름이라면 ‘하나님’은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 선대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이는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붙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인간)보다 앞서 살았거나 생겼던 모든 것들에게도 다름없이 이름이 있습니다. 모두의 이름은 그것들보다 앞서 계셨던 하나님께서 붙여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우리의 앞선 선대로서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이를 낱낱이 증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경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보다 앞서 이것들을 창조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일지는 몰라도 이 경우 창세기의 기록대로라면 호랑이는 아마도 우리보다 먼저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랑이의 입장에서 볼 요량이면, 호랑이의 말이 맞게 됩니다. 곧 우리는 ‘멍멍이’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필자의 생각은 여지없이 틀린 셈이 됩니다. 적어도 호랑이가 우리의 이름을 ‘멍멍이’라고 붙여두었다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냐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창 02:19-20)

구약성경의 맨 처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이 기록을 작성한 모세가 붙인 것으로 보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본래의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하나님이 되려면 “태초에 하나님인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3인칭이 아닌 1인칭 대명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보기에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이름보다 앞서 살았던 누군가가 부르기 위해서 붙여 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앞선 조건에 비추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누구도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지으셨다고 밖에는 달리 볼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생각이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이름을 스스로 붙이셨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무한하신 권능이자 권한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붙이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그것도 딱 한번 다음과 같이 일러 주셨습니다.

“...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 03:14)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앞서 ‘도량 있는 선비’에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 있는 자(I AM WHO I AM, *ehyeh asher ehyeh*, **אֶהְיֶה אֲשֶׁר אֶהְיֶה**)’입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여 둔 오만불손하기 그지없는 이름이라고 보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멋대로 만들어 부르고 있었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비유컨대 필자의 이름이 ‘심종석’인데 필자의 손자가 ‘멍멍이’라고 부른다면 필자의 기분이 어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필자 생각대로라면 아마도 며느리의 뱃속에 다시 처넣었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죄목은 오만불손(傲慢不遜)이 될 것입니다.

본래 이름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남이 붙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독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이름을 스스로가 붙이셔서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눈여겨 볼 경우에도 이름의 부여는 곧 창조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모든 창조물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부여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지으신 것은 어찌 보면 창조주로서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냐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창 11:09)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연원(淵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2가지로 불리고 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명사로서 끝이곧대로 ‘하나님’인데, 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Elohim*, ~~אלהים~~)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고유명사로서 4자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YHWH’입니다. 이들 4개의 자음글자로

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4글자'라는 뜻의 이른바 조어(造語)로서 테트라 그램머탄(Tetragrammat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YHWH'라는 단어가 나오면 본래 발음 대신 주(Lord)라는 뜻의 아도나이(Adonay)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YHWH'에 'aḏōnāy'를 뭉뚱그려(이 경우 a는 모음조화에 따라 e로 변화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Yēhōwāh'로 조작(造作)되고 이로부터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Yehowah)가 탄생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간략한 연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엘로힘', 'YHWH', '아도나이', '여호와' 등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부른 이름으로서, 달리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일컬으신 이름은 다름없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어 부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면에서 필자가 되짚어 두고자 하는 것은 명칭에 대한 사람의 검은 속내입니다. 이하 그 실상(검은 속내)을 찬찬히 바로 보고 따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지어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탑(Babel Tower, 창 11)에서 흩어진 죄 많은 우리 사람들은 제각기 흩어진 대로 머문 곳의 말에 따라 다양하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예컨대 미국인은 'God', 독일인은 'Gott', 프랑스인은 'Dieu', 이탈리아인은 'Dio', 중국인은 '天主', 일본인은 'かみさま', 한국인은 '하나님' 또는 '하느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제아무리 신명(神明)이 다르다고 해서 각기 부르는 이름 따라 하나님의 본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곧 미국인이 부르고 있는 'God'와 독일인이 부르는 'Gott'가 그 발음과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이들이 각기 다른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마다 처한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문화, 역사 그리고 언어의 전통 안에서 토착화된 이름을 부르고 있을 따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곧 모두가 제각기 달리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결국 한 분의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속성은 공통적으로 삼위일체(三位一體)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는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과 동시에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참 특이하고도 해괴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적어도 개신교와 가톨릭이 신명만은 일치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어에서의 ‘God’는 그대로 인정(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름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배타적인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곧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과 ‘하느님’을 엄연히 다르다고 보아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의 생각에 그 배경은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개신교에서만은 ‘하느님’을 옛날 우리가 그랬듯이 하늘에 있는 온갖 신으로 취급하여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만든, 보다

정확히는 언감생심 우리가 붙여 부르고 있는 상징적인 이름임에도 말입니다. 정히 그렇다면 주기도문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라 “오직 한 분뿐인 우리 아버지여...”로 말입니다. 이에 더하여 애국가(하느님이 보우하사)는 둘째치고서라도 이러한 말씀들은 도대체 어떻게 새겨야 합니까?

“...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05:16)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05:48)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마 23:09)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줄을 믿고 있습니다. 이는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고백이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필자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또한 사람을 안타깝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때로는 그들만의 기준으로 세상 앞에 획을 그으려는 개신교의 이기적인 잣대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궤변일지는 모르나, 만약 주장하는바 그대로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이라 쓰라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어찌면 경우에 따라 잡신(雜神)의 부류에 속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볼 수 없는 이 같은 일에 왜 우리만 이처럼 헛갈려해야 하고 시달려야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가톨릭에서는 오로지 ‘하느님’만을 굳이 쓰겠다고 고집한다면, 외람되나마 필자가 이를 중재하여 그도 저도 아닌 타협안으로서 ‘옥황상제’(玉皇上帝)라는 이름을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이 경우 ‘옥황상제’는 도가(道家)나 민간신앙(民間信仰)의 그것과는 달리 앞선 하나님의 속성예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임하게 될 본향으로서 청옥(靑玉)과도 같은 찬란한 천국의 주재자로서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덧붙여 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필자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을 모조록 바로 새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필자가 이 지면에서 질타하고 있는 것은 세상 앞에 뜻 모를 획을 긋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에 있음을 제차 분명히 되짚어 둡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출 24:10)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계 21:11)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하는 신명(神明)의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헛갈리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언제인가부터 ‘사도신경’도 깡그리 바꾸어졌습니다. 주기도문은 두 말할 것도 없고 찬송가는 가사나 편제나 장수나 할 것 없이 모두 바꾸어졌습니다. 엄숙하고 장엄하기 그지없어야 할 예배의 형식과 절차 또한 두말하면 잔소립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기독교’(基督教)라는 낫설기 그지없고 생경하기 그지없는 명칭은 누가 붙여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까? 지금에 서도 뜻을 알고나 쓰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현 듯 ‘기독교’라는 말(이름)을 들먹여 당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된 인식 또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기에, 본래 ‘크리스트’(Christ)라는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스어 ‘크리스토스’(Christos)를 어원(語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크리스토스’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메시아’(Messiah, ~~מָשִׁיחַ~~)가 되고, 이 ‘크리스토스’를 한문으로 표기(음역)하면 ‘기리사독’[基利斯督, 중국식 발음은 지리스뚜(Jilisudu)]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기독교’라는 단어는 마땅히 ‘기리사독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쁜 세상에 일일이 음운을 새겨가며 부르기가 고단해서였는 지는 몰라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기리사독’을 줄여 ‘기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기리사독(基利斯督)]의 이름에 빗대자면 줄지에 이름이 ‘그도’[기독(基督)]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도’가 맞습니까? 자랑스럽게 세상에 내보여야 할 우리 종교의 이름이 ‘기리사독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기독교’가 되어야 할까요? 재차 비유컨대 필자의 손자가 ‘심종석’이라는 필자의 이름을 두고 부르기 고단하다며 다만 끝 글자(석) 만을 따서 ‘석아, 석아’라고 부르면 필자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는 며느리와 함께 내쫓아야 할 패악한 죄로 보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재차 캐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맞을까요? ‘하느님’이 맞을까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 더 무지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 더 무지한 사람일까요? 외견상(外見上) 유일신(唯一神)이라는 뜻만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만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할까요? 아니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하늘에 계신 그것도 청옥같은 천국을 주재하고 계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는(출 24:10) ‘옥황상제’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할까요? ‘기리스독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후로 줄기차게 그것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혈전(血戰)의 선대들의 신앙고백이 되었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그것도 우리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린 사람들이 터무니없을까요? 아니면 옛날 그대로의 신앙고백을 다름없이 읊조리며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터무니없을까요?

세상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참으로 ‘이기적(利己的)인 종교’라고 폄하(貶下)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곧잘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아니 그보다는 이글을 접하고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이 같은 말을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단연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자의 처음 생각에는 이 같은 폄하가 ‘오직 예수’, ‘세상에 한 분뿐이신 하나님’에서 비롯된 망발(妄發)로 치부하고 뒷전에 두고 있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석하고도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귀하고 소중하게 접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는 크리스천 된 우리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며 한결같이 위하는 뜻을 올곧게 담고 있는 말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보다 그리스도인을 더더욱 싫어합니다”

이 말은 아시다시피 필자 또한 우리 크리스천 모두의 검은 속내에 드리워져있는 뜻 모를 교만과, 세상 앞에 획을 그으려고 호시탐탐 기도(企圖)하고자 의욕하고 있는 우리의 저급한 신앙을 적시하고 있는 세간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말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탐욕 그리고 지금까지 저급했던 우리의 신앙을 낱알이 들춰내어 가슴을 찢는 회개와 참회의 단초로써 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대신 피 흘려 속량해 주셨음은 물론, 또 다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청옥(靑玉)과 같은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예비해 주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대장되시며 창조주 되신 ‘옥황상제’(玉皇上帝)의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외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우리의 신앙고백의 외침 앞에 이 세상에서의 한결같은 외침 또한 메아리쳐 들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보다 그리스도인을 더더욱 좋아합니다”